금요 수필

검정 자켓에 담긴 마음

이 만 호
수필가

얼마 전 밤 9시 무렵이었다. 막내 여동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오빠, 40분 후에 도착할게요. 잠깐만 기다려줘요."

혹시 내가 잠들었을까 싶어 미리 알려주는 듯했다.

그리고 나서 정확히 40여 분 뒤, 딩동하고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막내 여동생과 매제, 그리고 다른 여동생이 환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런데 여동생 손에는 커다란 선물 봉투에 든 검정색 자켓 하나가 들려 있었다.

"이게 뭐냐?"

나는 무심코 물었다.

막내 여동생은 머쓱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오빠 입으라고 우리들이 돈 모아서 샀어."

자켓과 함께 양말 두 켤레도 건넸다.

자켓을 입어 보니 포근하고 따뜻했다.

하지만 가격표를 보는 순간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다.

56만 5천 원.

나에게는 결코 가벼운 금액이 아니었다.

"무슨 쓸데없는 짓을 했냐?"

핀잔을 주었지만 동생들은 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오빠한테 평생 받기만 했잖아. 이제 우리도 주고 싶었어."

그 환한 얼굴 앞에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며칠 전, 바로 밑 여동생을 떠나보냈다.

소장 종양으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동생의 장례식장에서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모였다.

화장터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봉안당에 안치하는 순간, 살아있을 때 가족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느꼈었다.

아마 그날, 여동생들은 마음을 모았던 모양이다.

"주는 기쁨이 이렇게 큰 줄 몰랐어."

자켓을 건네던 여동생의 말이 가슴 깊이 스며 들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집안의 6남매 중 장남이었다.

스물한 살이나 나이 어린 여동생들을 돌보며 살아왔지만, 넉넉지 못한 형편 속에서 마음만큼 큰 도움을 주지 못했었다.

어머니는 마흔다섯에 막내 여동생을 낳으신 뒤 심장병을 앓으셨고, 25년 동안 병원과 집을 오가며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을 하셨었다.

부종으로 얼굴과 다리가 붓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셨던 어머니를 위해 약을 사고 생활비를 보태며 버텨야 했던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그렇게 세월을 견디며 동생들을 시집·장가 보내고, 각자의 삶을 꾸려가도록 돕는 것이 내 삶이었다.

2017년 12월 말 교도관을 퇴직한 지도 어느덧 8년이나 지났다.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책임에서 조금은 더 자유로워졌지만, 여전히 넉넉한 삶은 아니다.

그래서 동생들의 선물이 더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했다.

하지만 아내는 조용히 말했다.

"기쁜 마음으로 받으세요."

그 말을 듣고 생각했다.

자켓 하나 입는다고 살림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동생들도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아가고 있다.

오히려 내가 덜 쓰고 더 아껴서 그들에게 더 잘해 주면 될 일이다.

삶이란 결국 오고 가는 정 속에서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부모님의 기일마다 가족이 유원지에서 모여서 물놀이라도 하자고 했지만 번번이 여건이 맞지 않았다.

그때 막내 매제가 말했다.

"콘도 잡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콩나물국밥 한 그릇이라도 같이 먹으며 자주 만나는 게 더 가족 간의 정 있는 삶 같아요."

그 말이 오래도록 내 마음에 남았다.

화려한 여행도 좋지만, 소박한 밥상이라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더 큰 행복일지도 모른다.

칠십 줄에 들어선 지금, 동생들은 모두 장성해 각자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다.

그런 동생들이 오빠를 위해 마음을 모았다는 사실이 선물의 가격보다 더 크게 다가왔다.

낮에는 떠난 여동생을 한 줌의 재로 보내며 마음이 무거웠었다.

하지만 밤이 되자 남은 동생들과 차 한 잔을 나누고, 한라봉을 까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속에서 우울함이 서서히 녹아내렸다.

검정 자켓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다.

그 속에는 살아남은 여동생들의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세상은 거창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듯하지만, 돌아보면 인생의 본질은 단순하다.

가족끼리 서로를 기억하고, 어려울 때 손을 내밀며, 기쁠 때 함께 웃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본다.

그 소박한 마음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아닐까 하고도 생각해 본다.

그날 밤, 나는 자켓을 조용히 걸어두며 생각했다.

삶이란 별것 아닌 듯하면서도 이렇게 따뜻한 순간들로 채워지는 소중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다.

가족이 있다는 것,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해보았다.

자켓은 나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로 다가온다.

이제는 얼마든지 사 입을 수 있는 여건이 되었지만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는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 자켓을 사 입을 수 없는 형편이었다.

그런데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지금은 돌아가신 고모님께서 친정집 장손인 내게 다후다 자켓을 사주셨었다.

그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 자켓을 동생들로부터 70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선물로 받고 보니 만감이 교차한다.

그래 가족이란 이처럼 서로 나누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리라 생각하며 이제부터라도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누고 보살피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고 굳게 다짐해 본다.

독자제언

운전면허 갱신, 이젠 생일 기준임을 확인해야

운전면허 갱신 기준이 변경된 사실을 알고 있는 시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기존에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갱신하면 되는 구조였다. 그러나 2026년도부터 운전자의 생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갱신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문제는 '예전 기준'으로 기억하고 있는 경우이다. 아직도 "올해 안에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시민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이는 이미 변경된 제도와 맞지 않는 인식이다.

갱신기간을 경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안이다. 더 나아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취소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이다. 여기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본인이 갱신기간을 놓친 사실조차 모른 채 운전대를 잡는 상황이다. 이 경우 무면허 운전에 해당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무면허 운전은 단순 행정착오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책임이 모두 뒤따를 수 있는 위험한 상태이다. 단 한 번의 착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운전면허는 도로 위에서의 최소한의 자격이자 사회적 약속이다. 그 자격을 유지하는 기본이 기한 내 갱신이다. 이제는 "연말"이 아니라 "내 생일"을 기준으로 기억하여야 한다.

본인의 생일이 언제인지 모를 사람은 없다. 그러나 생일 전후 6개월이 곧 갱신기간이라는 사실은 의외로 간과되기 쉬운 부분이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본인의 갱신기간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면허취소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작은 무관심에서 시작되는 결과이다. 지금 바로 본인의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확인하여야 하는 시점이다.

김재록 전주덕진경찰서 아중지구대 순경

사 설

단종의 고장 영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2월 18일 단종의 유배지 영월 청령포를 찾은 수많은 방문객들이 배를 타기 위해 길게 줄지어 있었다.

단종을 주제로 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올해 개봉작 가운데 처음으로 400만 관객을 넘긴 가운데 영월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다.

설 연휴 기간 내내 청령포 선착장에는 단종이 유배돼 머물던 육지속 섬 청령포를 들어가기 위해 배를 기다리는 관광객들이 많았다. 특히 14일부터 16일까지 7,200여명이 청령포를 찾았다.

지난해 설 연휴 청령포를 찾은 관광객 2,000명의 3배가 넘는 인파다. 단종이 묻힌 장릉에도 4,600여 명이 찾는 등 사흘 동안 1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단종 유적지를 다녀갔다.

이들은 영월과 단종에 대해 알고 싶은 부분이 많아 찾아왔다고 했다. 영월 시민들은 내 고향 영월이 자랑스러울 정도라고 말했다. 영월은 단종의 유배와 승하라는 비극의 역사를 간직한 공간이다.

영월군은 "영화의 흥행으로 장릉 청령포 많은 관광객 찾고 있는 만큼 안전과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인근 관광지원이나 소상공인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도 설날인 지난 17일 영월을 배경으로 촬영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관람했다.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함께 용산 CGV를 찾아 해당 영화를 관람한 사실을 공개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는 단종이 폐위된 뒤 유배지인 영월에서 촌장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과 생애 마지막 시기를 보내는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고령 1인 가구 웰다잉

웰빙 못지않게 주목받는 단어가 웰다잉이다. 노후의 삶을 존엄하고, 품위있게 마무리하는 것, 초고령 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하다.

인생 마지막 순간에 대처하는 자세에 지자체 지원이 시작됐다. 40년 넘게 혼자 산 어느 84세 할머니는 뉴스에 나오는 고독사 문제가 남 일 같지 않다.

할머니는 가족이 없어 항시 걱정했다. 죽으면 이 몸뚱이 하나 누구한테 의지하나 하고 걱정을 했다.

그런데 지자체가 나섰다. 구청 공무원이 방문해 장례 절차를 미리 의논한다. 화장 후에 어떻게 안치되기를, 원하는가도 선택한다. 유골은 뿌려야지 무슨 납골당이냐고 말한다.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공영장례도 안내한다. 올해 들어 처음 실시한 '품위사 지원' 사업으로, 고독사 위험이 있는 노인이 품위있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뒷받침하는 것이다.

고령 1인 가구가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건 언제나 혼자라는 고립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 자동으로 안부 전화를 걸고, 건강과 식사 상태를 확인하는 서비스도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다.

혼자 사는 70대 이상 노인은 약 159만명, 전체 1인 가구의 20% 가까이 된다. 독거노인 10명 중 7명이 빈곤층으로 나타나,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되지만 사회적 관심은 아직 부족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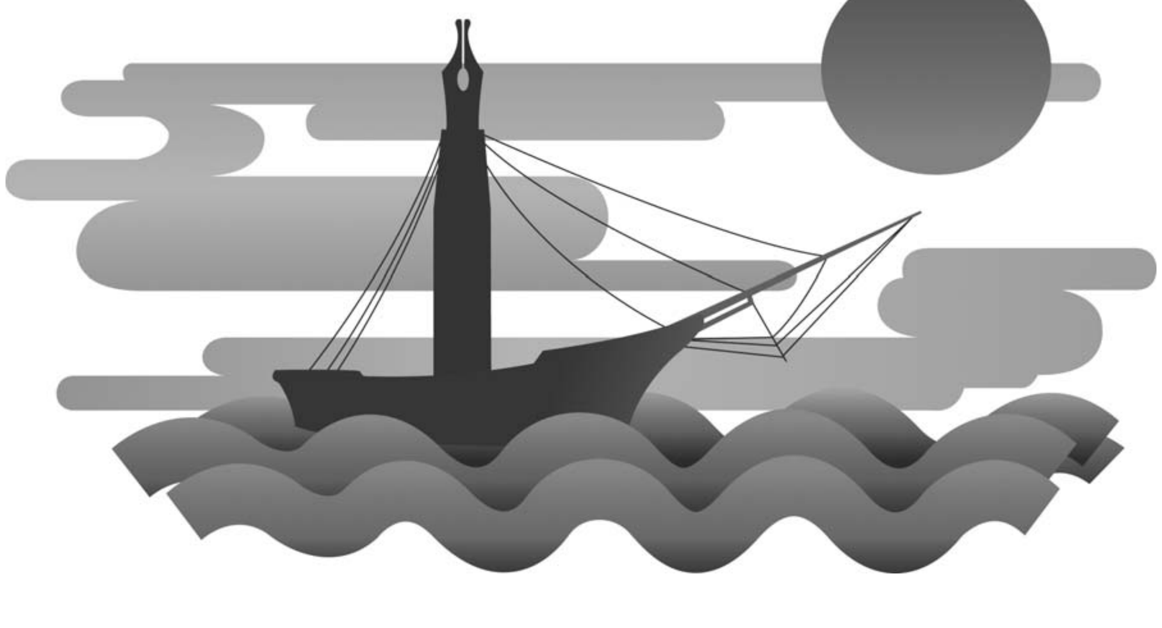
일단은 공공이 시작을 해주면 민간이나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명절엔 고립감이 더 커질 수 있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내 · 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